

문화재 건조물의 보존 수리에 빼놓을 수 없는 흔적 조사



문화재 건조물의 보존 수리 사업에서는 그 건물의 발전 과정과 역사적 자료 등을 토대로 건물의 문화적 가치가 명확하고 가장 높은 연대를 목표로 수리합니다. 이 구 스즈키 가문 저택의 경우는 저택지와 건물군이 형성된 1896년의 상태를 목표로 보존 수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건조물의 보존 수리에서는 상세한 흔적 조사를 통해 건물의 역사(당시의 건물 형상 등)를 알아갑니다. 게다가 문화청과 면밀한 협의를 거치면서 건물의 문화적 가치가 가장 높은 시대로 다시금 건물의 모습을 복원해 갑니다.

【COLUM】 때때로 도시의 역사까지 갱신될 때가 있다



【보존 수리의 첫걸음 흔적 조사】

문화재 건조물 보존 수리는 먼저 건물의 각 부재의 형상, 부식된 상태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기록해 가는 일부부터 시작됩니다. 목조건축은 목재에 수리나 바뀐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건물의 변천 과정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됩니다. 부분적이거나 전면적인 해체를 통해 건물에 남아있는 장부 구멍이나 못 자국 등의 흔적과 목재에 쓰여진 묵서 등도 조사합니다.



【상세 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사실】

아스케의 도시경관은 안에이 4년(1775)에 안에이의 대화(큰불)로 인해 시중의 상가 대부분이 불에 탔을 정도로 큰 화재가 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 구 스즈키 가문 저택의 보존 수리 공사에 따른 해체 작업을 통해 본채 남쪽에 있는 부쓰마(불단을 모셔 둔 곳) 방 외벽이 검게 그을린 흔적과 지붕 서까래 끝부분이 검게 탄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반자를 천정에 호레키 7년(1757) 묵서가 발견됨으로써 아스케에서 이 부쓰마 방이 큰 불에 타고 남은 가장 오래된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